

# 실협뉴스



The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News  
2018년 4월 25일 수요일 제749호



**OKBA와 친구해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OPEN

돋보기 검색창에서 'OKBA' 검색 후 플러스 친구 추가하세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검색창에 OKBA를 입력하세요.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 다가오는 SUPER DRAW

2018년 4월 28일

추가 **\$50,000** 보장 상금 50개 추첨

이젤 카드를 전시하여 이 특별 상품을 홍보하고 고객의 구매를 유도하십시오.

## 소매업자 신분 확인

OLG는 소매업자에게 복권/복권 상품의 판매 또는 당첨금 지급에 관여하는 모든 직원의 신분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권 단말기에서 출력할 수 있는, 신분이 확인된 직원 명단을 검토하십시오. OLG에 신분이 확인된 직원만 고객을 상대로 복권 거래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조치

- 직원 명단을 인쇄하여 검토하십시오.
- 정기적으로 명단을 검토하는 절차를 수립하십시오.
- 모든 신규 직원의 성명이 적절하게 추가되도록 하십시오.
- 성명 및 생년월일이 정부 발급 신분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 모든 성명은 명단에 한 번만 기재되어야 합니다.
- 성명이 틀렸거나 삭제되어야 할 경우, OLG 지원센터 (Support Centre)에 연락하십시오.

OLG는 여러분 매장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을 적극적으로 감시합니다.  
항상 직원 명단을 현재 유효한 것으로 유지하여 잠재적 규정 위반과 벌금 처벌을 방지하십시오.



### ■ Publisher

**Jae Gyun Shin** (신재균)  
Tel (416)789-7891(ext.70)  
e-mail.sjg0061@gmail.com

### ■ General Manager

**Don Cha** (전무 차동훈)  
Tel (416)789-7891(ext.30)  
e-mail.doncha@okba.net  
▶ 대정부활동 및 실무 총괄

### ■ Business Manager

**Sunny Chon** (실장 전승원)  
Tel (416)789-7891(ext.21)  
e-mail.sunnyc@okba.net  
▶ 사업개발  
▶ 공급업체 상담  
▶ 행사관련 사항  
▶ 회원등록

### ■ Business

**Brian Lee** (이주녕)  
Tel (416)789-7891(ext.26)  
e-mail.brianjn1108@okba.net  
▶ 사업개발  
▶ 공급업체 상담  
▶ 행사관련 사항  
▶ 회원등록

### ■ Accounting

**Sei Hwan Kim** (김세환)  
Tel (416)789-7891(ext.24)  
e-mail.accounting@okba.net  
▶ 리베이트  
▶ 대외 A/P, A/R  
▶ 실험사무 관리

### ■ Reporter

**Kwangil Kim** (실장 김광일)  
Tel (416)789-7891(ext.23)  
e-mail.tedkim@okba.net  
▶ 실험뉴스 취재  
▶ 기사제보  
▶ 홍보사항

### ■ Design

**Mi Young Hyun** (현미영)  
Tel (416)789-7891(ext.22)  
e-mail.mimihyun@okba.net  
▶ 광고 / 편집 디자인  
▶ 인쇄 및 홈페이지 관련  
▶ 광고문의

### ■ Website

www.okba.net

Publication Mail Agreement No:41140510

Return Undeliverable Canadian Address to: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175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Tel.(416)789-7891 Fax.(416)789-7834



[ 조성준 의원 후원의 밤 행사 성료 (해당 기사 9면) ]

## C O N T E N T S

|                             |  |
|-----------------------------|--|
| UKCIA 임시총회 개최   04 ~ 06     | 14 ~ 15   마리화나 / 담배 정책에 대한 경고 (연재3)    |
| OCSA 퀸즈파크 로비   07 ~ 08      | 16   임페리얼 토바코 본사 고위층 면담                |
| 조성준 의원 후원 행사   09           | 17   美, 1/4분기 편의점 실적                   |
| OCSA, 총선 겨냥 목소리 높여   10     | 18 ~ 19   교양상식 : 왕의 최후와 문고리 3인방        |
| 퀸즈파크 로비 주요 장면   11          | 20   Sunny의 건강 이야기(10) : 암(癌) - 4      |
| 그레이트 캐네디언 미트, 협회와 단체계약   12 | 21   OKBA 지구협회장 전화번호<br>2018년 협회 주요 사업 |
| 4월 8일 온주봉사상 수여식             |  |
| 키오스크 커피 사업   13             | 22   Directory                         |
| 세븐일레븐 미국 맑고, 일본은 구름         |  |

OKBA회장이 총연합회장 당연직으로  
UKCIA 임시총회 개최



▲ 거듭나는 UKCIA에 새로 가입하고 당연직 총연합회장이 될 신재균 본부협회 회장이 지역협회 임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SIGN UP WITH MONERIS  
AND GET **PREFERRED RATES**  
THROUGH THE OKBA MEMBERSHIP.

moneris.com/associations  
1-877-789-5335

**Moneris**  
BE PAYMENT READY

**실업인 협회 단체보험**  
Walter Roberts Ins. Brokers Inc.

집/자동차: 기준보험료 대비 **15%~20%**할인  
비즈니스: 담배도난 무제한 보상 가능

**오중찬 : C) 416-602-7083**  
joongchanoh@gmail.com

지난 4월 9일과 10일 이틀간 캐나다한인상공실업인총연합회(UKCIA ; United Korean Commerce and Industry Association of Canada 이하 '총연합회') 임시총회가 본부협회 사무실에서 개최됐다. 총연합회는 그 전신(前身)이 UKBA(United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였으며 발족된지도 15년이 넘었지만 가장 몸집이 큰 OKBA가 가입하지 않아 전국적인 거대 단체로서의 명실상부한 위상이 정립되지 않은 외형상의 모습이 결정적인 흠이었다.

그러나 이날 임총을 통해 협회가 가입함으로써 어울리는 몸집을 갖추게 됐다. 이는 총연합회 정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도 뒷받침됐다.

개정 정관 제 5장 집행부 제 9조 제 1항은 "본회의 회장은 OKBA회장이 겸임한다."라고 명시했다. 또 제 2항은 "본회의 사무총장은 OKBA전무가 겸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향후 총연합회가 협회를 주축으로 운영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밴쿠버, 에드먼튼, 매니토바, 뉴브런즈윅, 몬트리얼 지역 실업인협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모두 모여 (\*캡거리는 사정상 불참하며 위임장 제출) 첫날은 정관 개정안을 심의 확정되었으며 재무 인수인계 검토 작업이 있었다. 또, 네슬레 리베이트의 지역협회별 분담금과 회비에 대한 토의도 있었다. 마지막 안건으로 OKBA회장의 총연합회 자동 회장 겸임 안건이 심도있게 장시간 다뤄졌으며 약간의 이견도 있었으나 결론은 대다수 참석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 회의는 OKBA의 가입 여부도 중요한 안건의 하나였기 때문에 신재균 회장을 비롯한 협회측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후 OKBA가입이 가결된 후부터는 신 회장이 참석했고 인사말을 전했다. 공동 관심을 함께 논의했다. 집중 논의된 이슈는 몬트리얼실업인협회 전임 회장이자 총연합회 이봉섭 전임 회장의 재직 시절, 총연합회 산하에 상설 위원회 성격으로 설립해 수년째 운영해온 기구 '경제포럼'의 재정립 문제였다. 연방 보수당 연아 마틴 상원의원도 적극 후원했고 대사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했던 이 행사는 모국과의 연계성도 갖춘 만큼 성장해왔으나 OKBA도 가입한 만큼 보다 성숙하고 내실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보자는 의미에서 거론된 것이다.

포럼은 경제 분야에 집중하면서 이슈를 개발해왔다. 또한, 캐나다 한인 편의점 업계는 물론 캐나다 주류 사회의 편의점 산업 전반에 걸친 현안들을 다루며 대응책 수립을 위한 활발한 토론을 이어왔다. 앞으로도 편의점 당면 과제를 광범위하게 취급하면서 총연합회의 공동 관심사와 이해 증진에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음으로 정기총회 개최 시기 문제를 깊이 다뤘다. 세가지 안이 제시됐다. 예년의 경우, 대개 6월 중순 전후해서 정기총회가 열렸기 때문에 시기를 오래 끌지 말고 OKBA가 주도권을 쥐고 총연합회를 이끌게 됐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열어 위상 정립을 공고히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두번째 안으로는 내부적 결속력을 다지고 재도약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자는 취지에서 올 한해는 총회를 생략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끝으로 개천절인 10월 3일이 낀 10월 첫째주 적당한 날짜에 개천절 행사 겸 총회를 가지자는 안이 제시됐다. 3가지 안을 놓고 장·단점을 비교한 후 개천절 전후 오타와에서 가지자는 안으로 결의됐다. 이 안으로 하면 오타

**TouchCash Inc. ATM & POS**

한인의, 한인에 의한, 한인을 위한

Best People  
Best Service  
Best Results

타회사의 ATM, POS(Debit)를 계약하시고 문제가 많으신 분  
새로 ATM, POS(Debit)를 구입계획하고 계신 분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TouchCash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가  
최대의 이익을 보장합니다.

100% Smart Chip (EMV) Ready

Internet & Phoneline 겸용

Showroom : 820 Denison St. Suite #3, Markham, ON L3R 3K5  
Call Today 1-866-391-3950 / Fax 905-513-0919

와 국회 차원에서 연아 마틴 의원이 주축이 돼 개최될 행사도 치를 수 있고 행사 참가와 함께 대사관에서 같은 날 경제포럼과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참석자들이 선호하게 된 것이다. 9일 2시부터 진행된 마라톤 회의는 6시가 다 돼서야 종료됐으며 협회가 저녁 만찬을 제공해 못다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 임시총회 이틀째에 열린 제후사들의 설명회 장면

다음날인 10일 날은 전체 관심사인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위해 본부협회가 마련한 여러 제후사 설명회를 가졌다. 협회는 물론 서부 지역 한인 편의점 일부 회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원솔루션(1 Solution) 대표 이마태오씨가 회사 소개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PPT프리젠테이션을 했다.


이어서 편의점을 비롯한 소자영업소 중심으로 광고 마케팅 대행업무를 하고 있는 어댑트미디어(Adapt Media)가 회사와 사업 소개를 했다. 현재 이 회사는 협회와 단체 협약 직전 단계까지 와 있으며 회원 업소 광

고 수익 창출의 적임 제후사로 주목받고 있다. 회사측도 온타리오만이 아니라 시장을 전국으로 확대할 기회로 판단하고 협회가 마련한 총연합회를 위한 사업 설명회 자리를 통해 사장이 직접 설명회를 가진 것이다. 끝으로 협회의 또다른 제후사인 예노트레이딩(대표 조용구)에서도 최근 협회와 추진하고 있는 봉(bong)사업에 대한 설명 시간을 가졌다. 조 대표는 이미 서부 지역과 동부 지역 한인 편의점업주들에게 다양한 편의점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친숙한 분위기에서 설명회를 가질 수 있었다.

점심 시간 후에는 시간 관계상 공식 설명회까지는 가지지 못했으나 관심있는 참석자들과 본부협회 직원들 사이의 OKBA프로그램토어사업에 대해서 자유로운 대화를 이었으며 향후 사업 발전 방향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다. 이제 명칭에 걸맞게 협회가 총연합회에 가입했고 또한 협회의 주도적 역할이 주목되는 만큼 향후의 전개 과정이 전국 단위로 큰 관심을 끌게 됐다. 또한, 이 조직을 통해 주류사회와 전국 편의점 산업에서의 협회 위상 제고도 기대된다.

참고로 이번 총연합회 임시총회 참석자 면면은 다음과 같다.

- B.C KBA : 김영근(회장), 김성수(부회장), 한용(총무 이사), 박진철(UKCLA회장)
- 에드먼튼 KBA : 김성렬(회장), 김용출(이사장)
- 매니토바 KBA : 이동기(회장)
- 뉴브런즈윅 KBA : 김대진(회장)
- 몬트리얼 KBA : 이봉섭(전 UKCLA회장) ■



## 아담유 합동 법률그룹

Adam Yoo Stigler Nguyen & Associates

각 분야 전문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여러분의 법률 문제를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립니다.

|  |  |  |
|--|--|--|
| <div style="background-color: #00a0e3; color: white; padding: 2px; font-weight: bold;">교통사고, 개인 상해</div> <p style="font-size: small;">과실 유무와 상관없이<br/>교통 사고 후유증에 관한<br/>최대 보상,<br/>낙상, 정부 과실 보상 소송</p> | <div style="background-color: #00a0e3; color: white; padding: 2px; font-weight: bold;">교통위반 티켓</div> <p style="font-size: small;">과속, Stunt Driving,<br/>무보험, 신호 위반,<br/>벨트 등<br/>모든 교통법규 위반</p> | <div style="background-color: #00a0e3; color: white; padding: 2px; font-weight: bold;">형법</div> <p style="font-size: small;">음주 운전, 폭행,<br/>절도, 사기, 마약(Drug)<br/>보석(Bail) 등<br/>모든 형법 위반</p> |
|--|--|--|

**\* 형법**

\* 소액재판

\* 복권 판매법

**\* 가정법**

\* 세권, 세입자 분쟁

\* 담배 판매법

**\* 민사소송**


\* 주류 판매법

\* 회사 설립

\* O.D.S.P. 신청(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  
1년 이상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시 청구 가능.

“강력한 실력, 오랜 경력, 섬세함으로  
모든 법률 문제 해결”

변호사 : Leonard Stigler, Mai Nguyen, Shiv Passi  
법무사 : Adam K. H. Yoo, David Song, Mark Ginz  
Kate N. Han, Hassanein Bhaloo,  
Earl Francis Dacara



T : 416.739.8887 / 647.891.8867 / F : 416.739.7559  
1018 Finch Avenue West, Suite #100, Toronto

**“복권수수료 올리고 불법담배 해결해야!”**

## OCSA 퀸즈파크 로비



▲ 아침 8시부터 로비가 시작됐다. 첫 면담자인 제프 릴 장관이 중앙에 앉아 있고 오른쪽 옆으로 데이브 브라이언즈 OCSA 회장, 니콜비 대표 웬디 캐드롭스키, 본부협회 차동훈 전무가 앉아 있다. 왼쪽의 두명은 장관 보좌관들이다.

온주편의점협회(OCOSA)가 주관하는 퀸즈파크 로비인행사가 성료됐다. 촉촉한 봄비가 내리는 지난 4월 11일(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몇명씩 팀을 이뤄 정부 여당 주요 인사와 야당 의원까지 아울러 20여명의 정치인을 개별적으로 만나 편의점 경영 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여당측에는 우려감, 야당측에는 기대감으로 전체 대화 분위기의 무게를 실으며 의원들 성향에 따른 맞춤형 주문에도 고심했다.

세븐일레븐을 비롯한 주요 편의점과 독립편의점의 최대 단체인 협회 등 20여명의 대표자들이 소그룹으로 나눠 여야 의원들을 퀸즈파크 건물 내 의원 사무실이나 소회의실에서 만나 친분도 쌓고 편의점 현안 문제들을 밀도있게 전했다. 협회는 차동훈 전무가 참가했으며 OCSA 데이브 브라이언즈 회장, 니콜비 체인(Nicholby's) 대표 웬디 캐드롭스키(Wendy Kadlovski)와 한 팀이 돼 독립편의점의 경영악화 실상을 깊이있게 설명했다.

이들 3명의 팀이 만난 인물들은 장관 1명, 여야 의원 5명 등 총 6명이었다. 첫 일정은 아침 8시에 소상공업부(小商工部 small business) 제프 릴(Jeff Leal) 장관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됐다. 입각 전부터 협회는 여러차례 대면한 적이 있기 때문에 친숙한 인물이다. 장관의 주무 소관부처는 농림식품부(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로 농림식품부 장관이지만 스몰비즈니스 분야도 겸해서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또다른 직책의 정식 명칭은 'Minister responsible for small business'이다. 한국으로 말하면 스몰비즈니스를 담당하는 무임소 장관쯤으로 이해하면 된다.

무임소(無任所)란 정식 부처는 아니지만 다만 주정부에서 역점을 두는 분야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온주에는 내각안에 30개의 부처가

당신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1 Debit & ATM 서비스

# 1 SOLUTIONS

DATA CORPORATION



Debit and Credit Card Services



## 고객이 원하는 고급 맞춤형 서비스

- **데빗카드 수수료 - 3.69 cents / transaction**  
( Tap : extra 2 cents )
- **Rental Fee - \$30**
- **크레딧카드 - Visa, Master Card / Discover 수수료 1.55%**
- **No statement fee** (무료우편 또는 email 발송)
- **No any hidden charges**
- **Signing bonus \$300**
- **No Contract**
- **장비 문제발생시 - 캐나다 전지역 4-6 시간내 방문 교체**  
(365일 서비스)
- **Help desk 운영 24 / 7 365 days**
- **Your SATISFACTION is our goal.**

[www.1solutions.ca](http://www.1solutions.ca) / email : [mateo@1solutions.ca](mailto:mateo@1solutions.ca)

**Tel 1.888.554.7355 / Direct 905.962.1999 / Fax 1.888.554.0409**

있고 6개의 무임소 책임 담당 준 부처(non-portfolio responsibilities)가 있는데 이 6개 중의 하나가 스몰비즈니스다.

장관은 2명의 보좌관을 배석시키고 열심히 경청했고 세부적인 질문을 곁들이며 심도있는 대화 분위기를 이끌었다. 장관의 지역구는 피터보로이다. 이후 오전 9시부터 본회의장에서는 대정부 질의가 진행됐고 로비 팀들의 다수가 방청했다.

오후 일정은 12시 30분부터 자유당 소속 아더 팟츠 의원의 면담으로 시작됐다. 이하 장관을 포함한 6명의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전한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왼쪽부터 아더 팟츠(Arthur Potts ; 자유당), 제프 유렉(Jeff Yurek ; 보수당), 그랜빌 앤더슨(Granville Anderson ; 자유당), 앤 호가쓰(Ann Hoggarth ; 자유당), 리사 맥러드(Lisa MacLeod ; 보수당) 의원.

### ● 온주 편의점 현황

온주 전역에 8,000여 개의 편의점이 있고 고용인력은 8만여 명에 육박하며 하루 방문 고객은 270만 명이다. 총 매출 180억 달러에 정부 세수 기여는 연간 47억 달러, 정부 복권 수입 기여는 연간 24억 달러다.

### ● 정부의 좋은 파트너

편의점 채널은 정부 정책 구현의 선도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연령제한 품목을 그 어느 업종보다 많이 취급하면서도 연령확인 성실도는 95%를 넘고 있는데 이는 타 채널 - LCBO, Beer Store 등 - 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법무부와 보건부에서 확인한 자료 기준으로 2016년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연령체크 성실도를 확인한 결과, 편의점은 95.65%가 나왔다.)

### ● 편의점의 위기

정부의 정책에 기인한 편의점 경영의 악화는 폐업 속출로 드러난다. 올해 1/4분기에 이미 148개 업체가 문을 닫았으며 이대로 가면 올 한해 500여 개의 업소가 문을 닫을 전망이다. 편의점과 식품점의 경쟁관계는 첨예한데 정부는 특정 규모 이상의 식품점(대형 슈퍼)에 비어와 와인 판매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편의점을 소외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불공정한 정책이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에너지(전기료 등 광열비) 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경상이 큰 폭으로 올라 재정적 압박을 주고 있다.

### ● 불법담배 창궐

이미 오래전부터 수없이 반복해서 정부에 건의한 불법담배의 심각성은 해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다. 온주 내 불법담배 소비율은 37.2%이며 이는 4년 전 대비 67%가 늘어난 상황이다. 가장 심각한 곳은 선더베이 (70.9%),

노스베이(75.7%), 수생모리(86.4%) 등이다. 이 모든 것의 주된 요인은 비싼 담배가격때문인데 가격이 비싸지는 원인은 정부의 과도한 담뱃세 인상이다. 정품담배를 취급하는 온주 편의점 채널 전체가 불법담배로 인해 입는 피해액은 연간 11억 달러이며 정부 또한 불법담배로 인해 잃는 세수(稅收)가 막대하다.

### ● 대책 건의

단말기에서 출력해 판매되는 온라인 복권(Lotto Max, 6/49 등) 수수료는

5%, 즉석복권(instant ticket) 수수료는 8%이다. 세월이 20여 년이 지나도 복권 수수료는 전혀 변함이 없다. 온라인 복권을 8%로 인상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편의점의 위기를 그나마 긴급하게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은 복권 수수료 인상이다. 요즘 편의점에서도 현금이 아닌 카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복권을 구입 할 경우 2%의 거래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온라인 복권의 수수료는 실제로 3%인 셈이다.

이상이 장관과 의원들의 면담에서 설명하고 건의한 핵심 메시지다. 건의한 대책 중에는 위의 복권 수수료 인상이 가장 요긴한 제안이었지만 편의점 주류판매 허용도 강조됐다. 편의점까지 오픈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술판매가 우려된다고 하지만 가장 많은 연령제한품목을 취급하면서도 연령확인 성실도가 가장 양호한 채널이 편의점이라는 사실은 앞선 통계에서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주류 판매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준법정신과 숙련도를 고려할 때 편의점에 허용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는 이미 온주 내 시골 지역에 특히 집중해 있는 200여개 이상의 LCBO대리점(Agency)이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영업을 잘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재확인되고 있다. 이들 대리점은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겸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구입의 편리성도 높아진다. 경제적 측면에서 편의점 수입 증대는 물론 정부 세수 증대에도 기여한다. 이뿐 아니라 현재 지역 커뮤니티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맥주들이 판매망에 제약 받고 있는데 편의점 채널로 주류판매가 확대된다면 이들 중소 양조업체들에게 판매 루트가 확대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에이지(Smart Age)프로그램을 도입해줄 것도 건의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주류사업업 관리위원회(AGCO)가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 서브'(Smart Serve)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연령제한 품목을 취급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예외없이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초기 시행 단계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할당해 제도 시행

(17면에 계속)



## 6/7 총선, 재선 가능성 높아 조성준 의원 후원의 밤 행사 성료



온주 보수당 조성준(趙成俊; 영어명 Raymond Cho) 의원 '후원의 밤' 행사가 지난 4월 15일(일) 스카보로 컨벤션 센터에서 성대히 치러졌다. 전날부터 내린 얼음비와 눈에 강풍까지 겹친 악천후가 행사 당일 오후까지도 계속돼 참석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를 깨고 500여 명의 당원 및 일반 지지자들이 행사장을 거의 메워 성황을 이뤘다.

오후 5시에 후원금 접수와 리셉션 시간을 가지며 삼삼오오 네트워킹시간을 가졌으며 6시부터 메인 행사에 들어갔다. 한국계인 여성 사회자 한솔비씨와 비한인 남성 사회자가 듀엣을 이뤄 매끄럽게 진행을 이끌었으며 정면 중앙과 양측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 행사 진행을 먼 테이블에서도 즐길 수 있었다.

조 의원은 지난 2014년 9월 1일 치러진 스카보로 루지리버(Scarborough Rouge-River) 지역구 보궐 선거에서 보수당 후보로 나서 당선

▲ 불순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500여 명이 참석해 행사가 성황을 이뤘다.

됐으며 올해 총선에서 재선을 위해 재차 출사표를 던졌다. 당시 보궐 선거에 나갈 때 79세의 노령이었으나 만년 자유당 텃밭이었던 이 지역구에서 경쟁 자유당 후보를 11% 포인트나 넉넉히 앞서며 여유있게 당선돼 온주 정계에 돌풍을 일으켰다. 이번 재선에는 지역구가 조정돼 조 의원의 지역구는 스카보로 노스(Scarborough North)이다.

조 의원은 이미 지난 3월 31일 (토)에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일찌감치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날 첫 후원 행사를 가지게 된 것이다. 온주 선거법이 개정돼 후보 당사자와 동료 의원들도 후원 행사에는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참석자들은 조 의원을 직접 대면할 수

<15면에 계속>

 **onewholesale.ca**  
Smoke Shop / Headshop / Convenience Store Wholesaler

Authorized Zippo Dealer

**윈도매장**

**Order online by noon for SAMEDAY SHIPPING**

\*Ask for Free Zippo Display

BONGS, DAB RIGS, BUBBERS, RECYCLERS, HAND PIPES, E-CIG,  
VAPORIZERS, GRINDERS, DUGOUTS, SCALES, SMOKING PAPERS,  
ALL KINDS OF SMOKING ACCESSORIES  
ZIPPO LIGHTERS, and ETC.

**Business Hours**

Monday to Friday  
**9.00am - 5.00pm**  
Saturday  
**9.00am - 2.00pm**  
Closed on  
Sunday and Holidays

Cash & Carry Store  
606 Magnetic Dr Torono, ON M3J2C4

onetradingltd@gmail.com  
T. 416 661 6664 F. 416 661 6668

원가 상승으로 버거운 영업환경앞에서 고전했고 실망했다.

OCSA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 어떤 특정 정당, 또는 특정 리더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것은 아니지만(The OCSA is not endorsing any particular party or leader but ...) 최소한 우리에게 당면한 이슈들이 무엇인지 소속 회원들이 명확히 인식해줄 것을 바란다. 바로 이 인식하에서 회원은 물론 회원 가족과 고객들이 6월 7일 투표장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요구, 우리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것이다.

OCSA는 총선일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편의점을 둘러싼 핵심 이슈들이 후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래 정리한 이슈들의 핵심 쟁점을 회원들이 잘 이해하고 하나의 일치된 목소리를 결합해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 1. 불법담배와 담뱃세 인상(Contraband Tobacco/Tobacco Taxation)

온타리오내 불법담배 소비율은 40%에 육박하고 있고 시골 지역은 60%를 훌쩍 넘기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과도한 담뱃세 인상을 단행해 우리의 소비자들을 불법 담배 시장으로 내몰고 있으니 이 시안은 차기 정부가 반드시 제대로 해결해야 할 중대한 이슈다.

### 2. 원가 상승 압박 (Small business costs)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여타 인건비 상승 요인과 관련된 정책이 줄속으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면서 가족이 매달려 운영하는 소자영업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더해 전기세 등 광열비의 과도한 인상 등 다양한 원가 상승이 편의점에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 3. 비어/와인 판매 제외 (Beer/Wine in Convenience Stores)

일부 대형 유통 소매업소에만 비어와 와인 판매를 허용하면서 편의점은 배제시키고 있는데 결국 편의점의 경쟁력과 입지를 좁히고 있다. 퀵백 처럼 편의점에도 판매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 온주 시골 지역에서는 LCBO대리점이 216개가 있고 그간의 영업을 통해 편의점 허용의 정당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편의점은 성실하고 책임있는 지역 커뮤니티의 성원이었음을 증명해왔다.

### 4. 과도한 정부 규제(Red Tape/Over Regulation)

편의점 영업에 대한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와 과도한 규제책이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검토하고 정부와 소자영업이 함께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 5. 복권 커미션 인상(Review lottery commissions)

편의점 채널은 온주복권공사(OLG)수입의 76%를 소화해 정부 재정 수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가 인상을 상쇄하기 위해서 복권 커미션을 현실화해 인상해줄 것을 요청한다. 인건비, 전기료, 렌트비 등 각종 경성비가 오르고 있음에도 복권 커미션은 여전히 지난 20년 이상 제자리 걸음이다. ■

“복권 커미션도 현실화하라!”

## OCSA, 총선 겨냥 목소리 높여



온타리오편의점협회(OCSA)가 다가오는 주 총선을 겨냥해 기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협회가 그간 벌여온 편의점 살리기 SOS캠페인의 핵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하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온타리오가 향후 4년간 주정부를 이끌어갈 정당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6월 7일이 총선이다. 지난 자유당 정부하의 수년간은 소상공인에게는 대단히 힘겨운 시절이었고 편의점 업계 역시 숭한 시련을 겪었다.

## 퀸즈파크 로비 주요 장면

지난 4월 11일 퀸즈파크 방문  
OCOSA 로비 활동 주요 장면을 화보로 꾸몄다.



OCOSA 데이브 브라이언즈 회장의 말을 경청하는  
제프 릴(Jeff Leal)소상공업 장관



자유당 아더 파츠(Arthur Potts)의원과의 면담



보수당 제프 유렉 의원이 편의점 여건 개선을  
호소하는 설명을 진지하게 듣고 있다.



의원이 오기 전에 보좌관에게도 로비 열중



자유당 그랜빌 앤더슨 의원이 설명 도중 질문을  
하고 있다.



자유당 앤 호가쓰 의원(왼쪽에서 두번째)과의 면담에서  
독립 편의점의 심각한 위기가 특별히 강조됐다.



보수당 리사 맥크라드 의원이 편의점 실상에 대한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  
하고 있다.



# 그레이트 캐네디언 미트, 협회와 단체계약

## 4~6월 특별가 제공, 고수익 보장

비프저키로 회원들에게 이미 익숙해있는 캐나다 토종 회사 '그레이트 캐네디언 미트 컴퍼니'(The Great Canadian Meat Company ; 이하 GCMC)가 지난 4월 1일부터 본부 협회와 단체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그간 OKBA 프로그램스토어 가입 회원에게만 제공되던 혜택이 회원 전체로 확대된다. 리베이트는 매출액의 5%이다.

일차적으로 GCMC는 4월부터 6월에 걸쳐 3개월간 특별 판촉 기회를 제공해 회원들은 비프저키 68그램 제품에 대해 소비자 가격 4.99 달러의 경쟁력있는 판매가 가능하고 순익은 35%를 보장받게 된다.

회사측에 연락하면 모던하고 깔끔한 소형 전시대(rack)도 제공한다. 협회는 판촉기간 이후에도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참고로 회사측이 웹사이트를 통해 밝히고 있는 연혁과 제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도 곁들인다. GCMC는 지난 1992년에 온타리오 윗비(Whitby)에 설립됐으며 사장 한명과 직원 한명이 이 회사 간판급 브랜드 'Authentic Dry Pepperoni'를 내걸고 시작됐다. 이후 브랜드 종류는 다양한 막대형 페페로니와 프리미엄급 비프 저키로 확대됐다. 최근에는 특별 제조과정을 거친 소세지와 살라미를 이용해 'New Kurtzie's Gourmet Deli' 브랜드군을 통해 시장의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번 단체계약 체결 과정에서 접촉한 회사측 관계자는 "순수 캐나다 원료만을 고집하는데 퀘벡주의 돼지 고기, 서부 캐나다의 소고기만 사용한다."고 자부심을 보였다. 원료는 이밖에 닭, 칠면조, 사슴고기까지 아우른다. 회사측은 또, "전 제품들이 연방 식품관리청(CFIA ;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 제품전시 랙. 우측은 CFIA와 HAACP 기준을 통과한 안전한 제품임을 홍보하는 동영상 광고 캡처.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을 통과했기 때문에 질적 수준은 물론 소비자들의 안전한 소비도 확실히 보장된다" 고 강조하고 있다. ■

순수 캐나다산 육류제품  
**GREAT CANADIAN MEAT**  
 4월 ~ 6월 스페셜  
 SPECIAL \$4.99 Reg. \$5.99  
 1390 Hopkins St., Whitby (905) 666-9395

## 4월 8일 온주봉사상 수여식

본부협회가 정부에 상신한 봉사상(Ontario Volunteer Services Award) 수여 회원들에 대한 수여식이 지난 4월 8일(일) 이토비코 소재 올드밀 레스토랑(21 Old Mill Rd)에서 개최됐다. 협회에 할당된 6명 전원의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졌고 행사가 이날 열린 것인데 이중 4명이 위의 이토비코 행사장에서, 원저 회원 한명은 해당 지역 시오시로 클럽(Giociaro Club ; 3745 North Talbot Rd., Oldcastle)에서 각각 수상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가나다순)  
 금동진(5년), 김병훈(10년), 김종천(5년), 오승진(10년), 이응학(5년), 최범희(10년) ■



▲ 이토비코에서 열린 수여식(왼쪽부터 김종천, 김병훈, 금동진, 최범희 회원). 왼쪽 원안의 사진은 원저 지구협 이응학 회장이 온주봉사상을 수상한 후 지역 MPP 퍼시 햇필드(Percy Hatfield)의원과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이다.

# 키오스크 커피 사업



## 4피트 공간만 있으면 회원 부담 제로!!!

▲ 본부협회 신재균 회장과 회사 대표 지미 엠스(Jimmy Emms)씨가 계약 체결 후 본부협회 사무실에 설치된 키오스크 앞에서 기념 사진 촬영을 했다.

회원들의 추가 수익 창출을 위해 본부협회가 소규모 키오스크 (간이 판매대)를 이용한 커피 사업을 발굴했다. 제휴업체는 세인트지미스(Saint Jimmy's)라는 업체로 커피 키오스크 사업 분야에서 독보적 특성과 시장을 자랑하고 있다. 종래의 규모가 큰 커피 판매대와 직원 서비스가 요구되는 사업이 아니라 손님 셀프서비스로 고급 커피를 즐길 수 있는 4피트 남짓 작은 공간만이 필요할 뿐이다. 그렇다고 작은 커피대를 놓고 손님이 커피팟에서 따라 마시는 그저그런 구색맞추기 방식은 결코 아니다.

전문성이 돋보이는 모던한 외관의 키오스크에 커피 머신과 2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1회용 커피 캡슐이 진열돼 있고 손님의 취향에 따라 캡슐을 선택해 머신에 넣고 바로 신선한 커피를 흘러내려 마실 수 있다. 사업 방식은 1회용 커피 캡슐이 판매되는 양만큼 대금 결제하는 위탁판매(consignment)이며 따라서 키오스크 설비 제공 및 설치하는 회사측이 전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회원이 이 사업을 위해 투자해야 할 것은 공간 제공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제품과 부대품도 주기적으로 회사측이 무료로 제공한다. 그러나 매출 실적이 좋다면

설비 리스 방식의 계약으로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일정 리스액을 회사측에 지불하고 나머지는 업소가 챙기는 것이다.

커피 한잔의 소비자 가격은 1.60~2.00달러 수준이다.(회사측에 따르면 리스 방식일 경우 하루 리스액이 10달러 수준이라고 하는데 만일 하루 20잔을 판매한다면 월 리스료 300달러를 지불하고 300달러가 넘는 순수익이 보장된다고 한다. 협회는 시범적으로 우선 OKBA 프로그램사업 가입 회원, 지구협회장, 이사 업소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운영하고 추이를 보며 전망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면 일반 회원에게도 확대할 계획이다.

회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회사 웹사이트 [www.saintjimmyscoffee.ca](http://www.saintjimmyscoffee.ca)를 방문하면 된다. ■



미국에 1만 여개의 가맹점을 거느리고 있고 일본에 본부가 소재하고 있는 세븐일레븐 모회사 '세븐앤아이홀딩스'(Seven & i Holdings Co.)가 일본내 세븐일레븐의 매출 실적이 둔화됨에 따라 미국 세븐일레븐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다. 세븐앤아이홀딩스가 4월 초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17년 미국 세븐일레븐 영업 이익은 7%가 증가해 사상 최대인 36억 6,000만 달러(US\$)를 기록했고 올해도 6%의 이윤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한편, 미국 세븐일레븐의 전체 매출은 2017년에 14%가 증가한 290억 달러에 육박했다. 이처럼 미국 세븐일레븐의 비약적 성장세는 올해에 더 힘을 받아 22%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주 요인으로는 1,000 여개 이상의 서노코(Sunoco)체인 인수로 인한 외연 확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서노코 인수로 인해 미국내 세븐일레븐 매장은 9,700여개에 달한다.

이에 반해 올해 일본 세븐일레븐 매출은 3.6% 성장이 예견되며 영업 이익은 거의 증감 변화가 없는 정체를 보일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다. 2017년에는 거의 15%가 성장했던 것과는 큰 대조를 보인다. 이렇다 보니 워낙 잘 나가고 있는 미국 세븐일레븐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다.

## Seven & i Holdings Co., 북미주 시장 기대 커

### 세븐일레븐 미국 맑고, 일본은 구름



일본 세븐일레븐의 정체는 편의점 천국 일본의 편의점 과포화 현상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내수 시장을 더 확대할 여지가 희박하다는 말이다. 도쿄 세븐앤아이홀딩스는 "실적이 양호한 미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의 영업 이익 개선 가능성이 기대되며 일본 내에서는 수지가 안나는 영업장은 폐쇄하고 현상유지가 되는 업소는 과감히 리모델링 등을 통한 영업 환경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세븐앤아이는 또, "올해 지출은 두자리 수로 증가해 총 72억 달러가 예상되며 이 중 45억 달러는 해외 영업망에 할당할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

# 마리화나 / 담배 정책에 대한 경고



전국편의점협회(CCSA)가 최근 연방정부의 기호용(recreational)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과 주 정부들의 동 정책 집행안에 대해 포괄적이면서도 세부적인 팩트에 근거해 담배정책과 연관지으며 경고성 보고서를 내왔다. 핵심 내용을 요약 정리해 실험뉴스를 통해 몇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전국편의점협회 역시 이들의 흡연을 감소, 간접흡연 노출 감소, 판매를 비롯한 흡연 장소 등의 엄격한 규제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아울러 조만간 합법화될 기호용 마리화나에 대한 미성년자들의 접근 차단을 위한 정부의 더 많은 정책적 조치 또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inconsistent regulation of cannabis & tobacco will have serious consequences**

각종 건강 관련 단체들이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일차해서 높이지만 이보다 더 심각하게 만연돼 있는 마리화나 흡연에 대해서는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는 모순된 태도를 볼 수 있다.

## 마리화나와 담배에 대한 모순된 정책의 심각한 결과

각종 보고서들이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는 사실은 마리화나 소비를 일찍 시작할수록 소비 회수와 소비 기간은 증가하며 이는 잠재적 해악을 점점 더 키우게 될 뿐 아니라 이들 중 일부는 매우 장기적으로 혹은 사망 전까지 계속 소비하게 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다른 선진국의 젊은이들과 비교할 때 마리화나 소비가 가장 높다.(Our youth have the highest prevalence of cannabis use when compared with peers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가장 최근 자료인 2014-2015년 기간 중 고교생(6~12학년)들의 3.4%가 담배 흡연자였는데 2016년에 중 고교생의 17%가 마리화나 흡연자였다는 사실을 비교할 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는 공중보건의 지대한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 지넷 테일러 (Ginette Taylor) 전 연방 보건부 장관 (2007년 10월 하원 보건상임위원회 발언)

### ■ 미성년자 보호

### 현행 연령 제한 제도

## 마리화나도 담배와 동일한 연령 제한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캐나다에서의 담배 구입 최저 연령 허용은 주마다 차이는 있으나 18~19세 이상이다. 담배 판매는 엄격히 통제를 받고 있으며 편의점 채널은 본 보고서 앞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연령 확인 준수율이 95.7%로 준법 정신이 매우 양호함을 통계로 증명하고 있다.

전국 편의점 소매업주들은 미성년자들의 담배 접근을 차단하는데 매우

## 정부 검토안

| 구분   | 규정  | 비고   |
|------|---|--|
| 마리화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세 미만 구입 금지</li> <li>● 공중 보건을 위한 대국민 계몽 캠페인을 위해 960만 달러 책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콜로라도의 경우 기호용 마리화나 소비 합법화 이후, 미성년자 소비가 정부의 감소 및 차단 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 추세 (합법화 이후 20% 증가)</li> </ul>  |
| 담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세율 정책을 주축으로 불법담배를 퇴치하려고 하면서도 마리화나에 대해서는 연령 하한선 규정 이외에 고세율 정책 검토는 없음.</li> <li>● 담배에 대해서는 포장 통일화로 불법 담배 소비 조장의 우려를 낳게 하면서도 마리화나에 대해서는 이 수준의 규제는 없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정부 자료에 의하면 온타리오 고교생 상시 담배 흡연자 중 39%가 불법담배를 소비하는 것으로 밝혀짐.</li> <li>●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미성년자의 불법 담배 입수가 매우 용이함. 또한 불법담배로 인해 성인 흡연율 감소를 위한 정부 통제 정책 역시 효과를 무색케 함.</li> </ul> |

## CCSA 권고

담배 취급을 통한 연령체크 준법 수준이 매우 양호하다는 사실로 볼 때 미성년자 마리화나 노출 차단에 있어서도 편의점 채널은 담배와 동일한 성실도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향후 마리화나 판매 정책에서 편의점 업계의 의견과 주장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임.

### ■ 저위험 담배제품(전자담배)

정부 및 보건 정책 담당자들은 향정신성의약품과 담배에 대해 폐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년에 걸쳐 정부의 명확한 규제 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수천개의 베이퍼숍이 전국에 걸쳐 영업해오고 있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맞추기 위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편의점 업계와 공급사는 이같은 전자담배 암시장과의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처지다. 잘해야 법의 무풍지대에 속한 제품, 최악에는 불법으로 규정되는 제품을 우리는 팔지 않을 것이다.

『금연하기 힘들거나 금연하기를 원치 않는 담배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로 대체한다면 담배 관련 질병, 사망, 건강 피해 등을 줄이는데 전자담배는 도움을 줄 수 있다』 (Encouraging smokers who can not or do not want to stop smoking switch to e-cigarettes could help reduce smoking related disease, death and health inequalities.) - 잉글랜드 보건부 자문위원단의 한 전문가 발언 (2015년 8월 19일)

## 전자담배 관련 현행 제도

니코틴 함유 베이퍼/전자담배 제품은 현재 판매가 법적 허용 제품이 아니지만 이미 지하 시장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적으로 보건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정부는 전자담배를 건강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회 제품으로 판단하지는 않으면서도 법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 정부 검토안

| 구분                                   | 규정  | 비고   |
|--------------------------------------|---|--|
| 마리화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방정부는 '저위험 마리화나 사용 지침'(Lower-Risk Cannabis Use Guidelines)이라는 것을 수립함.</li> <li>● 이에 따르면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마리화나를 절제하는 것이라고 권고함.</li> <li>● 현실은 그러나 마리화나 소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 추세가 예견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위험 마리화나 사용의 장기적 효과에 관한 확정적인 증거는 없으며 중독성이라는 사실은 확실함.</li> <li>● CAMH(중독 및 정신 건강 치료센터) 보고에 따르면 약물 남용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25%가 마리화나 사용과 관련이 있음.</li> </ul>                         |
| 전자담배 (reduced risk tobacco product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담배 규제 정책 확정에 있어 연방은 영국 사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아 보임.</li> <li>● 즉, 확실히 입증되면 일반 담배 흡연자들이 저위험 담배제품(베이퍼/전자담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과학적 증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토록 함.</li> <li>● 소매업소는 흡연 소비자들로 하여금 저위험 제품으로의 대체를 결심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할 여건을 부여받아야 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내 130만 명의 전자담배 소비자들이 일반 담배 금연에 성공함.</li> <li>● 영국 내과학회(The Royal College of Physicians)는 공중보건의 견지에서 전자담배 사용 축진은 중요하다고 지지함. 아울러 흡연 대체물로서의 금연 치료법이나 치료 제품 사용도 적극 권장함.</li> </ul> |

## CCSA 권고

전자담배 규제가 건강 피해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지지하며 연방 정부가 Bill S-5를 전자담배 등 저위험 담배 제품 제조사가 담배보다 덜 해로운 이들 제품을 성인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이 허용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함.

또한, 이들 대체 제품이 기존 일반 담배 판매 채널인 편의점에서도 취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

### (9면에 이어) 조성준 의원 후원의 밤 행사 성료

는 없었지만 열기는 뜨거웠다.

한편, 이날 행사 참가자의 참가비(후원금)는 기본이 100달러였으며 500여 명이 참석한 것을 추산해보면 대략 후원금은 최소 5만 달러 이상 모금됐을 것으로 보인다.

협회도 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을 본부 협회가 일괄 취합해 5,500달러를 주최측에 전달했다. 행사 이후에도 후원금 납부가 가능하다. 이날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추후에라도 후원금을 내겠다는 회원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조 의원의 당선과 보수당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실감케 하고 있다. ■



## 회원 불만 전하고 한달 후 재협상

# 임페리얼 토바코 본사 고위층 면담



본부협회는 지난 4월 17일(화) 임페리얼 토바코 몬트리얼 본사 고위직 3명과의 면담에서 회원들이 공통으로 겪는 불만과 고충을 전했다.

피어슨 공항 내 웨라톤 호텔 소 회의실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가까이 열린 이날 회의에 임페리얼측은 차세대제품담당 총책 메튜 나돈(Mathieu Nadon), 마케팅 총책 장프랑소와 빠랑(Jean-Francois Parent), 대외업무담당 총책 에릭 가농(Eric Gagnon)씨가 나왔다. 임페리얼 캐나다 핵심 인물들이 거의 다 등장한 셈이다.

협회측은 신재균 회장, 차동훈 전무, 전승원 사업실장, 그리고 워터루 지구협회 권순천 회장이 이들을 맞았다. 본부협회는 지난 수주 동안 지구협회장들을 통해 본인과 소속 회원들의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조사했고 주요 내용을 취합 정리한 결과를 들고 면담에 임했다.

임페리얼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했으며 고(Go) 프로그램 미가입자의 가입 및 가입 후 자격 박탈자들의 재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3가지를 협회측에 제시했다.

**첫째, 회원들의 소매가격 책정과 이의 준수는 협회가 보장할 것.**

**둘째, 회원에 대한 임페리얼 제품 정보 교육과 홍보를 본부협회가 책임지고 수행할 것.**

**셋째, 회사측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제품종류(SKU)는 반드시 취급할 것.**

큰 범위에서 정리하자면 이상의 3가지 요구사항이 임페리얼측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이에 대해 협회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임페리얼의 차세대 담배인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glo)보급에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체인 편의점과의 불공정한 차별(혜택)도 도마에 올랐는데 이에 대해 회사측은 계약 조건이 출발부터 다를 뿐이지 협회 회원과 같은 독립편의점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 다시 말해 체인사들도 나름의 준수 조건이 엄격하고 이를 성실하게 지키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주어질 뿐이라는 것이다. 협회 회원만을 겨냥해 근본적인 차별이나 특별히 가혹한 조건은 없다는 것이다.

허심탄회한 대화는 진지하면서도 우호적으로 이어졌으며 임페리얼측은 본사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1개월 후 재협상을 마련해 협회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회의가 끝난 후 신 회장은 "명색이 캐나다 최대 담배회사의 본사 고위층 임원들이 회의에 나온 만큼 한달 후의 재협상 테이블에서는 회원들에게 조금이나마 유리한 정책을 가지고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고 프로그램 미 가입 회원들이 협조할 일은 상기 3가지 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본부협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이 서약서를 취합해 명단을 다음 면담에서 임페리얼측에 전해야 한다. 임페리얼측은 명단 제출 회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계약 조건을 마련하게 된다. 재협상 시에는 가입 회원들의 불만을 덜어줄 대책도 한단계 더 깊이 논의될 전망이다. ■

.....〈서약서양식〉.....

## 서약서

본인은 임페리얼 담배 제품 취급에 있어 본부협회가 제시하는 상한가격을 준수하고 본부협회가 제공하는 제품에 관한 정보를 숙지할 것이며 임페리얼측이 요구하는 제품종류(SKU)를 예외없이 취급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 성명           | 한글 | 영어 |
|--------------|----|----|
| 상호 및 주소      |    |    |
| 연락처(TEL)     |    |    |
| 임페리얼 어카운트 번호 |    |    |
| 서명           |    |    |

\*상기 서약서는 고 프로그램 미가입 또는 가입자격 박탈된 회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서약서 부분을 절취 또는 지면 전체를 절취해 본부협회에 팩스로 송부바랍니다. (팩스번호 416-789-7834) 제출 시한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 품목별 울고 웃고 난조

# 美, 1/4분기 편의점 실적



미국의 올해 1/4분기 편의점 매출 현황 통계가 입수돼 정리해서 소개해본다. 캐나다 시장과 비교해보는 것도 시사점이 있어 흥미로운 것으로 본다. 명암이 엇갈리는

대표적인 품목은 에너지 드링크와 일반 담배다. 전자는 상당폭 증가했고 후자는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했다.

우선 편의점 전체 매출액 3월 한달 실적은 80억 달러이며 전년 동기 대비 소폭인 1.1% 신장을 보였다. 1/4분기 실적은 0.2%의 미미한 증가에 그쳤다. 품목군별로 가장 중요한 담배를 보면 비록 감소세가 진정됐다고는 하지만 3월 실적은 1.2%가 감소했고 1/4분기 실적은 무려 4.9% 마이너스였다.(전년 동기에는 5.9% 마이너스) 그나마 더 큰 감소를 보일뻔 했으나 담배가격 인상분이 반영돼 이정도 감소에 그쳤다는 것이 업주들에게는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담배 대표주자인 알트리아사의 3월 매출액은 2% 하락했고 1/4분기는 3.3% 감소했다. 물량 소비에서는 5.6%나 감소됐지만 가격 인상 3.8%가 낙폭을 그나마 줄여줬다.

일반 담배군이 이처럼 죽을 쏜 반면 무연(無煙 smokeless)담배 분야는 4.2%라는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한 것이 특기할 만하다.

맥주의 이루어 할 FMB(맥아음료)나 사이더까지 포함한 광의의 맥주군 매출 역시 실적이 지지부진했다. 3월 한달 겨우 0.8% 증가에 그쳤으며(1/4분기는 -0.2%) 그나마 가격 인상 1.5%효과로 마이너스는 면한 것이다. 소비물량만 놓고 보면 감소한 것이다. 맥주 제조의 대표적인 앤허이저 부쉬는 2.0%나 감소했다.(1/4분기는 -3.4%) 극히 일부 회사 신제품을 제외하고는 고른 감소 혹은 정체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등 수입 맥주 전문 회사인 컨스텔레이션 브랜드(Constellation Brands)의 맥주 매출이 3월 13.3% 증가를 보인 것이 유독 눈길을 끈다.(1/4분기는 13.9% 증가)

한 투자전문회사의 품목군 분석기는 “컨스텔레이션 맥주는 편의점 맥주 분야에서 가장 유망한 브랜드로 맥주 상품기획에서 공간 점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 덩치키우는 괴물(growing Monster)

에너지 드링크가 뚜렷한 호조세를 보였다. 3월 실적은 3.9% 증가, 1/4분기는 3.7%였으며 에너지 드링크의 대표 주자 레드불(Red Bull)의 3월 실적은 1%, 1/4분기는 0.1% 증가했다. 반면 또다른 간판급 에너지 드링크 몬스터(Monster)는 3월 11.7%, 1/4분기 12.2%라는 폭발적 성장을 기록해 큰 대조를 보여줬다. 몬스터는 그렇다고 가격 인상 등의 특별한 가격 정책을 구사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다른 에너지 드링크 락스타(Rockstar)는 6.9%가 감소했다. 결론적으로 말해 에너지 드링크 시장은 전반적인 정체 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몬스터의 현격한 성장세가 전체 시장을 견인하는 형국이라 하겠다.

여타 음료군을 살펴보면 탄산음료(CSD)가 3월 2.7% 감소(1/4분기 3.8% 감소)했다. 코카콜라는 3월 0.3% 감소(1/4분기 1.5% 감소)했다. 소비물량 면에서는 4.2%라는 큰 감소였지만 4.1%의 가격 인상 효과로 감소폭을 줄일 수 있었다. 펩시(PepsiCo)의 낙폭은 코카콜라보다 훨씬 컸는데 3월 4.3%, 1/4분기 5% 감소했다. 소비물량도 4% 가까이 감소했다. 북미주 탄산음료 소비는 웰빙 트렌드로 인해 전반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썬 스낵류의 3월 실적은 1.9%, 1/4분기는 2.5% 증가했다. 스낵의 대표 주자 프리토레이 매출은 1.6% 증가했으며 1/4분기는 3.3% 증가했다. ■

## 〈8면에 이어〉 OCSA 퀸즈파크 로비

을 현실화해달라는 것이다.

면담이 끝난 후 오후 6시부터는 의사당 본관 2층 미팅룸에서 리셉션 파티가 있었다. 의원과 보좌관 등을 초대해 자연스러운 네트워킹을 통해 친분을 다지자는 의미에서 마련된 행사였다. 두 달도 남지 않은 6월 7일에 총선이 치러진다. 여야를 떠나 모든 의원들이 표심잡기에 여념이 없는 시즌인만큼 그 어느 때보다 의원들의 태도가 진지했고 우호적이었다. 협회가 작년 8월부터 벌여왔던 ‘편의점구하기(SOS) 캠페인’과 라디오 광고까지 파악하고 있는 의원들도 많았다. ■



## 왕의 최후와 문고리 3인방

고대 중국에 '소백'((小白)이라는 이름의 왕이 있었다. 사리분별이 뛰어나며 관용을 베푸는데도 아낌이 없는 자애로운 군주였다. 부왕으로부터 물려받아 하루아침에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온갖 풍파를 겪으며 힘들게 얻은 제위였다. 그래서인지 정말 정치를 잘했다. 그런데 모든 신하와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던 왕이었던 만작 죽을 때는 굶어죽었다.

평생의 명성을 생각하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겠지만 원인은 단 하나, 『고대판(古代版) 문고리 3인방』 때문이었다. 귀와 눈을 가리는 간신 3명에게 현혹된 결과인데 실수치고는 뼈에 사무칠 노릇이다. 이번호 교양상식에서는 아무리 현명한 지도자라도 사악한 한줌의 측근 때문에 대사를 망치고 본인 또한 처참한 말로를 겪은 비운의 왕 이야기를 하려다. 최근 모국에서는 대통령이 두명이나 구속돼 빵에 가이는 개탄스러운 처지를 맞고 있다. 결국 측근 관리를 잘못하고 직언을 하는 부하가 가까이 아무도 없었던데서 비롯되었음을 잘 아는터라 이 고사의 의미가 새삼스럽다.



때는 춘추전국시대, 기원전 7세기 말엽이었다. 제(齊)나라에 관중(管仲)과 포숙아(鮑叔牙)라는 현명하고 출중한 신하가 있었다. 관중은 체구도 크고 흰칠한 용모에 마음은 당당하고 호쾌했으며 옛 경전에 통달했을 뿐 아니라 세상을 구하고 시대를 바로 잡을 지략을 풍부히 갖추고 있었다.

포숙아 역시 이에 못지 않은 경륜과 덕을 갖춘 인물이다. 둘은 어릴 때부터 사귀 친구인데 노모를 모시고 사는 관중의 집안은 항상 가난했다.

둘이 한때 동업으로 장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관중이 이익을 나눌 때면 항상 더 가져갔다. 주변에서 관중을 비난하자 포숙아는 “그가 구구한 이

익을 탐해서가 아니라 집이 가난해 내가 그리 하라고 했다.”고 감싸줬다. 둘은 또 전쟁터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관중은 싸울 때 늘 뒤에 처지고 되돌아올 때는 선두에서 행군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이 관중을 겁쟁이라고 비웃었으나 포숙아는 “그가 노모를 봉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정말 겁쟁이는 아니다.”라고 변호했다.

이처럼 늘 관중을 아끼고 옹호해주는 포숙아는 친구 관중이 언젠가 때를 제대로 만나면 나라를 위해 크게 쓰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런 포숙아에 대해 관중은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지만 나를 알아주는 자는 포숙”이라고 말했다. 두사람의 변함없는 우정은 죽을 때까지 가는데 후대 사람들이 둘 사이를 일컬어 ‘관포지교’(管鮑之交)라 했으니 오늘날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우정을 묘사할 때 늘 등장하는 고사성어가 이 두사람으로 인해 유래한 것이다.

다시 왕 이야기로 돌아와 당시 제나라 왕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다. 큰아들은 규(糾), 작은 아들은 소백(小白)이라 했다. 참고로 제나라 왕의 성씨는 강(姜)이다. 제나라는 지금의 산둥성 지역에 세워진 나라로 시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태공(본명은 강상姜尙)이다.

한편, 제나라 왕은 식견도 모자라고 음행만 일삼아 평판이 안 좋았다. 오죽하면 배다른 여동생(문강 공주)과 죽기 전까지 틈만 나면 간음을 일삼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자식보는 눈은 있어 두 아들 모두 제왕으로서의 자질이 탁월해 둘 중 한 명에게 제위를 물려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 천하 명 재상 관중(管仲)의 초상화

그러나 일이 슬슬 꼬이기 시작한 것은 영민한 아들이 음략을 일삼는 부왕에게 절제해줄 것을 간한 것에서 비롯됐다. 쾌심하고 건방지게 여겨 두 아들과 소원해지기 시작했는데 후환을 염려해 큰 아들의 스승인 관중과 작은 아들의 스승인 포숙은 자신의 왕자를 데리고 각각 다른 이웃나라로 피신했다. 이후 제나라 왕은 야심가인 못된 신하에게 살해당했고 신하들끼리 제위가 비어있는 궁중에서 온갖 모사와 알력이 벌어졌다. 결국 이웃나라로 피신가 있는 큰아들

인 세자 규를 모셔와 왕위로 삼기로 결정했다. 정통성으로 보면 당연한 결론이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인 소백 또한 제나라에서 더 가까운 이웃나라에 피신하고 있었기에 형보다 더 빨리 궁중에 도착하면 왕위를 이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부군 장례에 참석한다는 그럴듯한 구라를 치면서.

이제 두 아들끼리의 궁중 도착 마라톤 선착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게 됐다. 호위 군사들과 거마를 이끌고 초스피드로 먼지가 날리도록 달리는 데 규와 그를 보필하는 신하 관중이 동생 무리가 질주하는 길을 가로질러 앞에 버티고 있다가 지근 거리에서 관중이 화살을 매겨 소백에게 날렸다.

관중은 활 솜씨가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이 쏠 소리를 내며 날아가 소백의 허리에 정통으로 맞았다. 소백이 악! 소리를 지르며 수레 위에서 나뉘었다. 그러나 왕은 하늘이 내린다 했단가. 소백은 두툼하고 탄탄한 허리띠를 차고 있던 덕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살아 있으면 관중이 다시 화살을 쏠 것을 염려해 비명을 지르고 쓰러지며 죽은 척 했을 뿐이었다.

이 사실을 모르고 형인 규는 관중과 함께 느긋하게 잔치까지 벌이며 여유있게 행군을 했고 이 틈에 소백과 포숙은 밤을 낮삼아 열심히 군대를 몰고 본국인 제나라 수도 임치성의 왕궁에 먼저 도착했다. 스티븐 넘치는 왕위

쟁취전에서 왕의 자리(정확히 말하면 주나라 천자가 있기 때문에 ‘공’이라 칭하나 편의상 왕으로 불러주자.)를 차지한 이 글의 주인공 소백이 바로 제환공(齊桓公; B.C. ~643)이며 춘추 오패를 꼽을 때가장 먼저 패권을 잡은 왕으로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다.

진짜 이야기는 소백이 왕이 된 이후다. 왕에게 스승인 포숙아가 이렇게 진언하는데 현대적 분위기로 살려 표현해본다.

**포숙아:** 전하, 조의와 경하를 동시에 드립니다.

**제환공:** 조의는 뭐고 경하는 또 뭐가?

**포숙아:** 비록 세자 규는 전하의 라이벌이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복 형님인 이상 목숨을 잃었으니 조의를 표하는 것이며 경하는 그의 신하 관중이 아직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중히 여겨 이 나라 재상으로 삼으십시오.

**제환공:** 뭐야? 아니 화살로 나를 쏘 죽이려던 놈을 어떻게 내 밑에 부려? 그때 하늘이 도와 허리띠를 맞아 살았지만 그랬으면... 내가 하도 원한에 사무쳐 그때 그놈이 쏜 화살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구. 그 지식 생각만 하면 이가 갈려 그놈 고기를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은데 불러다가 재상으로 쓰라니 가당키나 한 소린가? (\*이미 소백이 왕이 된 이후 관중은 다른 나라에 피신해 소백에 의해 살해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었고 또한 피신해있는 나라의 조정에서도 그를 사로잡아 제환공에 바쳐 인심을 얻을 궁리를 하고 있어 이래저래 죽은 목숨이었다. 그런데 포숙아가 기막히게 술책을 써서 그를 무사히 빼내 제나라로 오게 해서 여관에 스탠바이시키고 있었다.)

**포숙아:** 그 일을 원한으로 삼지 말고 깔끔하게 잊으시고 그 자를 반드시 재상으로 쓰시면 왕의 대업은 탄탄대로를 달릴 것이요 우리 제나라는 막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장담합니다. 신하된 자는 자신의 주군을 위해 충성을 바쳐야 하는 것이며 관중은 의당 할 일을 한 것 뿐입니다. 그에게 당시에는 오죽 주군인 규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침을 튀겨가며 열변을 토하자 왕도 생각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해 포숙아의 체면을 봐 관중을 죽이지는 않겠다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이후에도 포숙아는 여러모로 지극히 간하며 관중을 제발 귀하게 써달라고 애원하고 읍소한다. 이에 살짝 감동된 왕이 결국 관중을 집무실로 불러 단둘이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며 소상히 질문을 한다. 왕의 질문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정치, 국방, 외교, 경제에 관한 광범위한 현안 문제들이라 쉽게 답할 수 없는 이슈들이었다. 그런데 관중의 답변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웅대한 비전으로 가득차 있었으며 모든 질문에 대해 즉답하며 막히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사서의 기록에 의하면 둘의 대화는 3일 낮밤으로 이어졌으며 그림에도 의기투합해 전혀 피곤한 줄 몰랐다고 한다. 마침내 3일동안의 마라톤 대화가 끝나고 왕은 외쳤다. “심봤다! 유레카!” 왕은 크게 기뻐하며 목욕계하고 태묘에 고한 뒤 관중을 재상으로 임명하는 성대한 세레모니까지 치렀다.

이 대단한 임명식에서조차 관중은 임명장을 받기 직전 왕에게 천하 경영에 대한 강의를 늘어났다고 한다. 이후 제나라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부국강병으로 천하를 재패했다. 불구대천지 원수를 국무총리 자리에 앉히는 대범함과 포용력이 낳은 위업이었다.

그러나 그처럼 현명했던 제환공도 결점이 하나 있었으니 얼토당토않은 문고리 3인방을 가까이 둔 것이 화근이었다. 이 문제는 관중이 살아있는

동안 그의 마음을 늘 불안케 했다. 본인이 죽으면 왕의 총기가 저들 세명으로 인해 흐려질 것이고 공들여 쌓은 나라의 기초마저 흔들리지 않을까 노심초사였다.

간신 3인방 중 한명은 수초(豎貂)라는 이름의 내시였는데 왕이 궁중에서 아주 가까이 두고 부리는 입안의 혀같은 존재였다. 처음부터 내시는 아니었으며 왕이 자기를 이뻐해주자 아예 스스로 고자가 돼 왕의 내궁으로 들어와 수족처럼 밤낮으로 왕을 따랐다. 이런 수초가 또다른 간신 한명을 천거했으니 이름이 옹무(雍巫)라고 했다. 권모술수에 능하고 왕의 입에 맞는 요리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인간이었다. 어느날 왕이 농담으로 “내가 세상의 온갖 맛있는 요리는 다 먹어봤지만 사람 고기는 아직 못먹어봤는데 맛이 어떨까?” 라고 했다. 며칠 후 옹무가 아주 희한한 요리를 바쳤다. 다 먹고 난 왕이 무슨 고기인데 이렇게 맛있냐고 감탄하자 태연하게 “인육으로 만든 요리입니다.”라고 답했다. 놀란 왕이 어디서 인육을 구한단 말인가 라고 묻자 “세살 난 제 아들을 잡아 요리했습니다.”라고 답하면서 “임금에게 충성된 자는 그 집안을 돌볼 겨를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전하께서 사람 고기 맛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시기에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덧붙이며 거침없이 혀를 놀려댔다. 이쯤 되면 막가지는 거냐고 왕이 자를 멀리 할 법도 하건만 웬지 왕은 옹무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며 본격적으로 총애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들의 짓거리를 관중은 소상히 잘 알고 있었으며 못마땅해 했으나 워낙 왕이 사랑하는지라 은근히 견제만 할 뿐 화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둘 역시 관중이 자신들을 싫어하는 것을 잘 아는터라 시도 때도 없이 왕에게 관중을 모함했다. 하지만 왕의 관중에 대한 신뢰는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으니 그나마 다행이었다. 끝으로 개방(開方)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자는 앞의 두 인물과 출신이 다르다. 이웃 위나라 왕의 아들이었으니 존귀하였으나 제나라에 인질로 와 눌러앉아 부왕의 장례식도 가지 않고 제환공에 과장된 충성 제스처를 보여 출세기도 달렸다.

저들 문고리 3인방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모두 모질고 반인륜적이라는 사실이다. 의술도 형편없던 시절, 스스로 고자가 됐고 자식을 죽여 요리를 바쳤으며 부모가 죽어도 출세에 눈이 어두워 장례에도 참석하지 않은 인간들이었다. 관중은 이들의 비정하고 독한 행태에 대해 개탄하며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저런 참혹한 짓을 마다하지 않는 인물들이니 무슨 짓인들 하지 못하겠느냐”고 죽기 직전까지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이야기를 마무리하자. 병환이 깊어 임종을 앞둔 관중이 왕에게 저들 3명을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된다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 왕은 관중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도 그의 간곡한 이 당부 말은 귓전으로 흘러 들었다. 그나마 관중의 절친 포숙아도 죽은 후 왕은 판단력이 많이 흐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제나라는 저들 간신 3명의 손아귀에 떨어졌다. 국정 농단이 공공연히 자행됐고 물리적으로 왕에게 가장 가까이 있던 이들인지라 신하들의 접견은 철저히 가로 막혔다. 심지어 처소 주변을 높은 담으로 둘러싸 이들의 승락없이는 아무도 왕을 만날 수 없었다. 그리고 노쇠하여 거동도 불편한 왕에게 물한모금도 주지 않아 천하의 제환공은 자신의 침실에서 갈증에 시달리며 굶어 죽었다. 이들은 왕의 서거를 쉬쉬하며 감추고 자기들끼리 권력투쟁을 벌인다고 두달이 지나도록 장례를 못 치러 시신에서 구더기가 바글거렸다. 비참한 말로였으며 결국 제나라는 이로부터 수백년이 지나 기원전 221년 진시황에게 멸망될 때까지 다시는 패권을 잡지 못했다. 문고리 3인방을 가까이 둔 인사 패착의 귀결이었으니 예나 지금이나 역시 인사(人事)는 만사(萬事)임을 새삼 일깨우는 귀중한 역사적 교훈이다. ■

# Sunny의 건강 이야기(10)

암과 젖산 그리고 산성과다증(Acidosis)의 연관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Cori Cycle(코리회로)”에 대하여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1947년 노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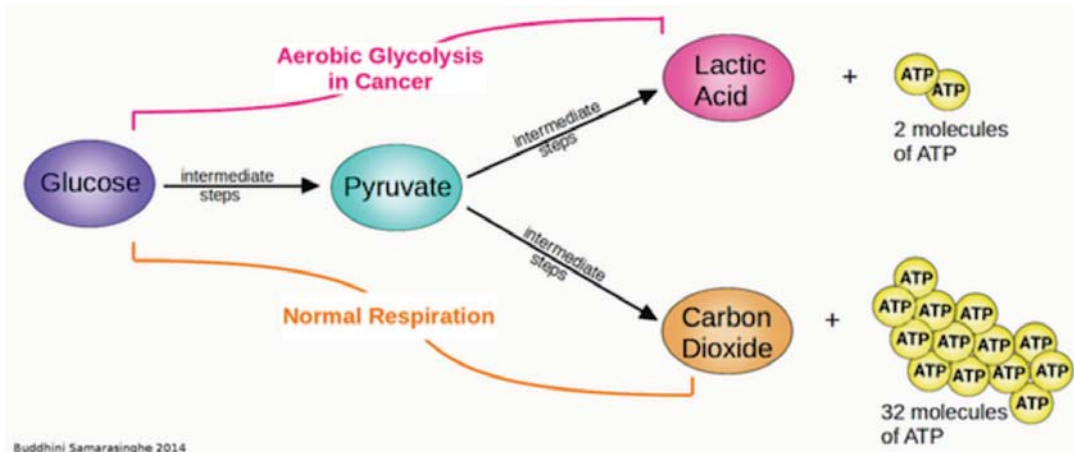
의학상을 공동수상한 칼 코리와 거티 코리 박사 부부가 밝혀낸 탄수화물 신진대사의 회로다. 근육, 지방조직, 뇌 등인 말초조직의 혈액에서 이입된 포도당은 해당계(解糖系)를 거쳐 일부는 젖산(乳酸)이 되어 혈중에 방출되고, 간(장)에 이입된 후 포도당으로 조립되고, 재차 혈중으로 방출되는 장기들 사이의 회로를 말한다. 급격한 운동을 한 경우는 근육조직과 간(장)사이에서 성립한다.

박사 부부는 이미 1945년부터 암세포 생성의 근본적인 원인이 산성 과다증이고, 이 원인을 알고 몸세포의 알칼리화를 유도하게 되면 암이 완치된다는 사실을 전파했고 수천명의 암환자를 치료했지만 미국 기존 의학과와 식약청의 방해와 법적 저지로 많은 환자들로부터 완치의 기회를 빼앗아갔다. 암세포와 이 젖산이 생성되는 과정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

## 암(癌) - 4

같은 존재라고 이해하면 된다. 젖산의 과다 생산은 몸을 산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나 암세포를 키우는 영양 보고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또한, 젖산이 과다 생성되면 젖산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주는 신장과 간에 무리를 주어서 각 장기에서 필수로 실행해야 하는 고유작용이 작동 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젖산은 온갖 질환에 해롭게 작용한다.

우리 몸에는 림프와 면역체계가 존재한다. 림프는 온몸 세포와 활동에서 비롯되는 찌꺼기를 몸밖으로 내몰아주는 역할을 하는 한편 지용성(脂溶性) 에너지와 비타민을 심장에 전달하는 생명선이기도 하다. 참고로 수용성 비타민은 혈관과 심장을 거쳐 온몸에 전달된다. 림프선은 실제로 우리 혈관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방대한 조직이다. 하지만, 림프선이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하는데, 혈관과 마찬가지로 온갖 독성과 화학물질이 소화해낼 수 있는 양을 넘게 되면 하수도과 마찬가지로 막히게



다. 근육활동을 포함한 모든 세포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주로 글리코겐의 분해현상을 거쳐 ATP라는 화학에너지가 발생하여 세포를 먹여살리게 된다. 정상세포는 탄수화물에서 분해된 포도당 한개에서 총 34개의 ATP를 만들어 사용하는데, 암세포는 이 활용률이 떨어져 2개의 ATP만을 생성한다. 물론 암세포의 생성속도는 정상세포에 비해 매우 빠르지만 암 세포가 생존을 위해 필요한 포도당은 일반세포보다 20배가 넘는다. 포도당은 탄수화물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조달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설탕(Sucrose)과 과당(Fructose)이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설탕과 과당 섭취는 암환자에게는 암세포에게 직접적인 먹이를 주는 꼴만 되는 것이고, 이 당분섭취만 중단시키면 암세포는 에너지가 고갈되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변수가 있다. 암세포는 교약하면서 교활한 놈이라 가성비가 낮은 포도당 대신 젖산을 이용하여 16개의 ATP를 만들어낸다. 코리 사이클에서 설명한 글리코겐은 젖산을 생산하고 간에서 다시 포도당으로 재조립되는데, 암세포는 간을 통하지 않고 바로 젖산 발효를 통해 자신의 주 에너지원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경우, 중앙축진 유전자가 발현되어 탄생되는 것이고 증식과 번식에 산소가 필요하지 않은 악마와

마련이다. 더 큰 문제는 림프선이 오염되면 산성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산소와 영양분이 정상세포에 전달되지 못하면서 암세포를 빠르게 번식시키고 전이되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이다.

혈액의 산성화는 혈관이 막혀서 이루어지고, 세포의 산성화는 림프가 막혀서 진행되는 것이다. 주된 원인은 폭식과 과식에 있고, 림프를 괴롭히는 음식은 육류, 우유제품, 그리고 당분이 많이 함유된 제품과 가공 식품이다. 인스턴트 음식은 물론 단백질이 지나치게 많이 포함된 음식도 림프선을 막히게 하는 주 원인처이다.

또한, 중금속(납, 수은, 비소)은 림프에서 여과되거나 쉽게 몸밖으로 내몰수없는 물질이어서 심하게는 수십년간 몸속에 남아있게 된다. 그 외에도 화학농법의 주범인 제초제, 살충제, 비료도 우리 몸속의 주요 영양분을 사정없이 파괴하기 때문에 림프선을 통해 전달될 영양분과 산소가 턱없이 부족하게 만든다.

더욱 심각한 것은, 림프선이 막혀 있고 산성이 강하면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와 해충과 같은 세균(Microbes)이 살기 너무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욱 증세가 악화되는 것이고 암 유발 유전인자를 활성화시켜 주는 최악의 경우가 된다.

산성과다증(Acidosis)과 함께 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세균의 활성화와 면역체계의 붕괴에 있다. ■

(다음 호에 계속)

# OKBA 지구협 회장 전화번호

## - 광역토론토 지구협회 -

- Etobicoke**  
회장 이두승 (416) 895 - 1277
- New Market**  
회장 금동진 (905) 836 - 6429
- North York**  
회장 김정렬 (416) 665 - 6709
- Peel**  
회장 이수봉 (905) 813 - 1333
- Richmond Hill**  
회장 김대용 (905) 471 - 8079
- Scarborough**  
회장 엄종호 (416) 759 - 4503
- Toronto East**  
회장 김중범 (416) 363 - 9404
- Toronto West**  
회장 김재숙 (416) 975 - 0365
- Weston & York**  
회장 조용상 (416) 604 - 3116

## - 남서부 지구협회 -

- Brant County**  
회장 김중학 (519) 756 - 0099
- Halton & Hamilton**  
회장 장은홍 (905) 679 - 4812
- London**  
회장 오세정 (519) 432 - 6672
- Niagara Falls**  
회장 김흥기 (905) 371 - 3539
- Waterloo** 남서부 지구협의회 의장 겸임  
회장 권순천 (519) 684 - 7444
- Windsor**  
회장 이응학 (519) 734 - 7111

## - 동북부 지구협회 -

- Durham**  
회장 이현식 (905) 579 - 2500
- Huronia**  
회장 진재원 (705) 487 - 2005
- Kingston**  
회장 이강정 (613) 967 - 9998
- Owen Sound**  
회장 위재광 (519) 794 - 2626
- Peterborough**  
회장 홍성훈 (705) 652 - 6323

www.okba.net

온라인을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OKBA PROGRAM STORE

컨비니언스의 미래

Strong Retailers' Network

- 독립편의점 네트워크 구성 중점
- 프로그램 스토어 전담팀 운영
- 가입 업소 직접 방문
- 문제점 및 업소운영에 대한 상담
- 각 업소에 맞는 운영안 제시
- POS 시스템의 운영으로 자료 축적을 통한 공급,유통 환경 개선



# DIRECTORY



## ■ 협동조합

협동조합 사무실 ----- (416) 789-7544  
 169 The West Mall, Etobicoke  
 협동조합 웨스트몰지점 ----- (416) 867-1444  
 169-175 The West Mall, Etobicoke  
 협동조합 모바일지점 ----- (416) 285-9591  
 1 Mobile Drive, Toronto

## ■ 담배회사 및 관련업체

Imperial Tobacco Canada ----- (800) 379-7629  
 JTI MacDonald Corp ----- (800) 268-2068  
 Rothmans Benson & Hedges ----- (800) 387-8555  
 Kretek ----- (905) 625-1169  
 House of Horvath Inc. ----- (416) 534-4254  
 Scandinavian Tobacco ----- (866) 837-1807  
 Casa Cubana ----- (514) 737-0066  
 GVA Canada Inc ----- (416) 573-8085  
 National Smokeless Tobacco Co. ----- (519) 208-5138  
 Bic Inc ----- (416) 742-9173  
 Nibo Group Inc. ----- (905) 479-0022

## ■ 복권관련

AGCO (복권 판매 라이선스 관련) ----- (416) 326-8700  
 (800) 522-2876  
 Fax (416) 326-5555  
 OLG ----- (800) 387-0104

## ■ 음료

Coca Cola Bottling Company ----- (800) 241-2653  
 Pepsi Bottling Corp. ----- (905) 568-7909  
 (800) 387-8400  
 Nestle Waters Canada ----- (519) 763-9462  
 Lasseonde ----- (905) 791-5300

## ■ 우유

SAPUTO(Neilson Dairy) ----- (800) 663-4724  
 Parmalat ----- (905) 829-0555  
 Sealtest / Natrel ----- (416) 442-2300

## ■ 스낵 공급

Frito Lay Canada ----- (905) 460-2414  
 Old Dutch Foods Ltd. ----- (800) 387-2273  
 Krispy Kernels ----- (800) 461-7337  
 South Cove ----- (905) 829-3666

## ■ 초코렛 / 캔디

Nestle Chocolate ----- (800) 500-5634  
 Mars Canada Inc ----- (800) 565-0147  
 Hershey Canada Inc. ----- (800) 268-1304  
 Mondelez(Cadbury/Christie) ----- (855) 535-5648  
 Wrigley Canada ----- (416) 442-3298

## ■ 아이스크림

Nestle Ice Cream ----- (905) 458-3600  
 Ontario (800) 500-5634  
 Unilever Canada Inc ----- (866) 888-2775  
 Fruti Distributing ----- (866) 663-3231

## ■ ATM / Debit

TD Merchant Services ----- (888) 663-6634  
 Touch Cash ----- 1- (866) 391-3950  
 Moneris Solutions ----- (866) 319-7450  
 1 Solution ----- (905) 962-1999

## ■ 잡지 공급

Metro News ----- (416) 285-2050  
 News Group ----- (905) 681-1113

## ■ 법률관련

변호사 이영동 ----- (905) 272-4339  
 변호사 박재현 ----- (905) 527-0202  
 Best Defence (아담 유) ----- (416) 739-8887

## ■ 금융 / 회계 / 재정 / 보험

Bank of Canada(위조지폐 관련문의) ----- (888) 513-8212  
 신한은행 ----- (416) 250-3550  
 외환은행 ----- (416) 222-5200  
 TD한인금융센터 ----- (416) 250-5855 (손종호 ex 231)  
 이방록 회계사 ----- (416) 221-2009  
 오중찬 보험 ----- (416) 602-7083  
 최창근 모기지 ----- (647) 928-7313  
 이은진 회계사 ----- (416) 802-3870

## ■ 언론사

한국일보 ----- (416) 787-1111  
 중앙일보 ----- (416) 736-0736  
 Globe and Mail ----- (800) 387-5400  
 National Post ----- (416) 383-2500  
 Toronto Star ----- (416) 367-4500  
 Toronto Sun ----- (800) 668-0786

## ■ 장비 설치 수리

종합캐쉬레지스터 ----- (416) 622-2255  
 프로캐쉬레지스터 ----- (416) 804-4075  
 Cool Air Cleaning ----- (416) 224-0020  
 Hi Cool Tech ----- (416) 909-7114

## ■ 기타

Kocom ----- (416) 769-3532  
 DSC Digital System ----- (416) 255-6549  
 Label & Bag Depot ----- (416) 432-2937  
 Ubix Communications ----- (416) 492-6022 (Ex.221)  
 David Health International ----- (647) 726-1010  
 허바헬스 ----- (416) 435-5754  
 365 Wholesale ----- (416) 931-9002  
 Butterfly Fashion ----- (416) 785-5999  
 The Best Inventory Service ----- (905) 359-8560  
 원도매상 ----- (416) 661-6664

# 달콤한 휴식

신제품

- 초콜릿 브랜드 1위
- KIT KAT, 해당 업계의 선두를 차지하며 14% 성장\*
- 3가지 맛 출시



자세한 내용은  
도매업자에게  
문의하세요!



버블에서  
...느껴지는...  
마성의 맛

- 시장 진출 기회 증대
- 더욱 세련된 모양
- 속 안을 가득 메우는 트러플

\*Nielsen TL KIT KIT L12W p/e 2015년 12월 12일  
상표 소유 / PROPRIÉTAIRE DES MARQUES: SOCIÉTÉ DES PRODUITS NESTLÉ S.A., VEVEY, SWITZERLAND / SUISSE.  
라이센스 소유자 / LICENCIÉ: NESTLÉ CANADA INC., NORTH YORK, ON M2N 6S8.



# 2018.4.22~2018.5.19

Frito Lay Canada에서는 2018년 4월 22일부터 2018년 5월 19일까지 클럽 골드 회원, 플래티넘 회원, 다이아몬드 회원에게 스페셜을 실시하오니 방문하는 판매 담당자 또는 드라이버에게 문의하세요. 4주 한정기간 동안 프로모션이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Ruffles XL  
Club Gold / Club Platinum / Club Diamond



**2/\$3** All Single Serve  
Club Gold / Club Platinum / Club Diamond



**Spitz 2/\$4**  
Club Gold / Club Platinum / Club Diamond



**Lays SS & Pepsi 591ml 2/\$3**  
Club Diamond



- 최소 주문량 \$50
- 다양한 제품 오더 가능 (Single Serve, Take Home, Convenience Food, etc)
- 직접 재고 관리 가능
- 필요할 때마다 주문 가능 (무료 배달/주문 후 이틀안에 배달 완료)
- 충분한 유효기간 (창고에서 직접 포장)
- Single Serve는 Snack to you를 통해 주문 가능합니다.

Online at [snackstoyoucanada.ca](http://snackstoyoucanada.ca) or Phone 1-866-404-8881